

三、幸西寺 小鐘

日政期부터 傳來하는 靑綠繡의 小鐘으로서 서울 車明浩氏가 現藏하고 있다. 通式。로서 鐘肩에는 三角立狀蓮紋帶가 둘러 있고 上·下帶(唐草紋) 四乳廓(各九乳)이며 乳廓間에는 蓮花紋 撞座와 菩薩坐像이 各二交代하고 있다. 甬筒上에는 八珠가 裝飾되어 있고 龍鈕는 前·後足에 舍珠形이다. 鐘體에는 五行의 刻銘이 있어 字徑 一·五cm이다.

施主□何 「應珍珠」 開州地 「幸西寺」 至庠三序(六叔)
總高 十八cm 鐘高 十三cm 上徑 七·五cm 下徑 十一·二cm

谷城 堂洞里 逸名寺址 調査

——全南 谷城郡佛蹟 三——

鄭 永 鎬

竹谷面 堂洞里一區의 대나무밭(竹林)속에 廢寺址가 있는데 그곳에는 法堂址에 柱礎石이 散亂하며 石塔材와 蓮華紋板石等이 隣接洞리에 移搬放置되고 石佛坐像 一軀가 洞口路邊에 移安되어 있다. 이 寺址에 關하여는 記錄에 없으나 現存遺物과 遺蹟으로 미루어 보아 當初에는 宏大한 規模의 寺刹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現在 寺址 및 附近洞리에 散在한 遺物을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寺址遺物과 石塔材

대나무밭 가운데 高二m 長約五十m 가량되는 石築址의 餘적이 있고 그 위 臺石에 羅代式的 圓座가 있는 礎石이 많는데 手法은 麗代로 降下된다. 石築이 東西로 뻗은 것으로 보아 南向寺刹이 있었을 것이다.

(礎石外徑 四八·五cm 礎石內徑 四三cm)

築臺 밑 언못(池)가에는 塔 基壇部로 보이는 二枚石이 埋沒되어 있는데 側面에는 眼象이 二區씩 陰刻되어 있다.

洞里와 竹林 사이의 溪流에 長方形의 石橋板石이 하나 놓였는데(一五



時間半의 下臺發掘을 하고 난 뒤 調査하였다. 그때 朴氏도 作業을 도왔는데 이 佛像의 移安經緯를 詳細히 들을 수 있었다.② 옮겨진 佛像이어서 地臺石은 없� 方形下臺를 놓고 그 위에 方形中·

三cm×八七cm) 下面에는 七二cm×四四cm의 받침이 마련되고 그 周邊에 彫飾이 있는 蓮華紋을 둘러었다. 이 蓮瓣石은 또한 다른 同一石二枚로 짜여진 어떤 部分의 臺石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中一石은 一邊長一五四cm 高一五五cm이다)

石塔材는 初層身·蓋二石을 調査하였는 바 屋蓋石은 이 마을居住 李起洪氏가 竹林에서 옮겨 自己집 우물옆에 팔래판으로 놓았다. 轉角에 磨損이 있으나 手法이나 形式은 알 수 있어 받침 四段 落水面의 傾斜等으로 미루어 麗代로 推定되었다. 下面中央에 二重의 圓孔이 陰刻되었음은 屋身의 舍利裝置關係일 것이다. 身石은 堂洞里一區一〇一番地 朴泰安氏宅 솔타리 바로 옆에 放置되어 오래 前부터 某人士(縣監)의 善政碑 臺石으로 使用되었다. 四面 兩隅柱는 整然히 刻出되었으며 上面에는 圓形의 舍利孔이 있다. 實測值(cm)는

屋蓋石長	八八	下面外圓徑	十七
最下받침長	五六	內圓徑	七
屋身石高	五九·五	舍利孔徑	十七·五
幅	五五·五	深	五
隅柱幅	十一	圓孔全深	四

二、石佛坐像

現在 朴泰安氏宅 옆 空地에 있는 堂洞里 石佛坐像 ① 左便에 安置되어 있는데 筆者가 調査할 때에는 臺座中石下部까지 埋沒되어 있어서 約一

上臺를 받아 坐像을 모셨다. 下臺의 伏蓮은 複瓣으로서 一面三葉씩이고 各四隅合角은 귀꽃紋으로 彫飾하였으며 側面에는 獸面二軀를 陽刻하였고 上面一段의 받침으로 中臺를 받고 있다. 中臺는 各面周緣에 額을 돌렸고 前面에는 中央의 寶塔을 向하여 左·右 菩薩立像이 供養하는 모습을 陽刻하였는데 塔은 木塔樣式을 具現한 點과 菩薩의 寶冠 및 若干씩 竝인 몸매의 流麗한 彫刻手法이 注目되었다. 左·右 側面에는 雲上界에서 供養하는 菩薩坐像을 前面寶塔쪽을 向하게 彫刻하였으며 後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上臺石은 十六瓣이 둘러진 各仰蓮內에 一軀씩의 坐像을 大彫한 特殊한 樣式이라 하겠다. 坐像은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 降魔觸地印을 結하였으나 頸部에도 「시멘트」補強處가 있고 各部彫刻이 磨損되어 威容을 損傷시키고 있다. 頭部의 肉髻, 相好 各面이 分明치 않으며 兩耳는 짧고 右肩偏袒의 衣文은 太線이고 兩肩背面에 두 홈(二處陰刻)이 있음은 光背의 附着處가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한편이 坐像에서 더욱 注目되며 興味있는 것은 背面과 左右側 各面에 一軀씩의 坐像을 彫刻하여 마치 四方佛의 表現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背面의 坐像은 素髮의 頭頂에 肉髻가 있고 法衣는 右肩偏袒太線이며 三道가 뚜렷하고 頭身光二條線인 바 頭光의 頭部周邊에는 八瓣의 蓮華紋이 있고 身光에는 四葉花瓣이 三處에 配置되어 있는 등 매우 整然한 彫刻手法을 보이고 있다. 이에 對하여 右側坐像은 磨滅이 極甚하여 各部分 分明치 않으며 左側의 坐像도 磨損은 있으나 낮은 肉髻와 右手에 瓶(盒?)을 들고 있음은 뚜렷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石佛 自體에 四方佛을 彫刻한다는가 또는 臺座 仰蓮內에 坐像의 彫飾이 있다가 하는 예는 아직 調査된 바 없는 稀貴한 遺物이라 할 것이다. 年代는 蓮瓣이나 各部 彫刻手法 및 臺座의 樣式으로 보아 高麗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렇듯 貴重하고 特殊한 樣式의 文化財에 對하여 路邊으로부터의 安全保護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值는 (cm) 坐像高 二二〇 肩幅 五五 膝高 十九 背面坐像高 六二
 頭高 三八 胸幅 三二 幅高 八八 肩幅 五五

右側坐像高 六七 上臺石高 四三 中臺石高 四二
 左側 〃 六二 各邊 一〇〇×九三 各邊 五五·八×四六·五
 下臺石高 三五·五 臺座高 一一九·九
 各邊 九〇×八六·五 全高 一三九·九이다.

資料

錦山地方의 支石墓 調査

李 殷 昌

一九六三年 가을에 錦山地方의 支石墓를 調査한 바 이는 支石墓分布研究에 參考가 되는 資料라 하겠다.

1, 浮岩里 支石墓

珍山面 浮岩里의 道路邊(錦山 全州間)에 支石墓가 있는 바 數年前에 破壞하여 現今은 石片 몇개가 남아있을 뿐이다. 部落民의 말을 들어 보면 北方式으로 推定되며 이 支石墓를 「뜯돌」이라 하며 「浮岩」이라는 里名도 이에 따르는 것이라 한다.

2, 撐石洞 支石墓

珍山面 「괴인돌(撐石洞)」部落에 既往에 支石墓가 있었다 한다. 洞民의 말에 依하면 倭政 때 道路工事(錦山—全州間)關係로 支石墓를 破壞하였다는데 現在는 路邊 人家에 그 殘石 數個가 남아 있다. 北方式으로 推定되며 이 支石墓를 「괴인돌」 또는 「명석(撐石)」이라 하고 이에 따라 洞名 또한 「괴인돌(撐石洞)」이라 한다.

3, 石峴洞 支石墓

錦山面 「돌고개(峴洞)」라는 部落西便에 낮은 高개가 있어 鞍形臺地를 이루었는데 이 곳에 長이 三五〇cm 幅이 一三〇cm 厚가 二〇cm 乃至 五〇cm의 盤石으로 된 自然岩 巨石이 있다. 이는 支石墓로 推定되는 바 長軸을 南北으로 取하고 南方式이라 하겠다. 이 地點에서 約 一〇m

註

① 拙稿·本誌 第七卷 第七號(通卷七二) 十三頁 參照

② 朴氏는 今年 四四歲인데 十三歲 때 即 三〇年前 堂洞里一區 「대밭절터」에서 洞民들이 이곳으로 移安하여 萬人의 信仰佛로 모셨다고 한다.